

이시노호텐(石の宝殿, 돌의 보전)

이 거석비는 오시코 신사의 신체로 모셔져 있습니다. 유리쇄설암(hyaloclastite)이라는 거석으로, 마그마와 냉수가 갑작스럽게 접촉하면서 형성된 미세한 유리질 파편의 집합체입니다. 높이 5.7m, 폭 6.4m, 두께 7.2m이며, 무게는 약 453 톤으로 추정됩니다. 암반으로 삼면이 가로막힌 커다란 구멍 속에 솟아있으며, 그 중 한 면에는 삼각뿔 모양의 돌출부가 있습니다. 비석과 암반 사이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있으며, 비싸지 않은 요금으로 거석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.

이시노호텐은 물웅덩이 위에 있으며, 아래에 있는 기둥이 잘 보이지 않아 바위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예로부터 특별한 형상과 놓여 있는 방법이 특이하여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며, 현지에서는 '우키이시(浮石, 부석)'라고도 불렸습니다.

이 근처에는 다쓰야마 1 호분이 있는데, 이시노호텐과 관련된 인물의 무덤으로 여겨집니다.

기원 이야기

약 1,300 년 전의 기록에 이 거석이 이곳에 있었다고 적혀있지만, 유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많은 수수께끼에 싸여있습니다. 전설에서는 고대에 오나무치와 스쿠나히코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신이 이즈모(현재의 시마네현)에서 당시 평온하지 않은 상황에 있던 하리마(현재의 효고현)라 불리는 이 지역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. 화친을 촉구하기 위해 석조 궁전 건축을 허가받았지만, 하리마 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이 지역은 짓밟히고 두 신의 노력은 방해를 받았습니다.

반란이 진압되었을 무렵에는 날이 밝아왔고 건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두 신은 자신들의 영혼이 남겨진 거대한 바위 중 하나에 깃들여 영원히 이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현재, 이 바위는 이시노호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기적의 거암

이시노호텐에 대해서는, 현재의 효고현에 해당하는 지역 연감 중 713 년부터 717 년에 걸쳐 천황에게 진상된 하리마국 풍토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. 풍토기에 따르면 이 거석은 6 세기의 유력 호족의 수장이었던 모노노베노 모리야가 쇼토쿠 태자의 명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,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
에도 시대(1603~1867)의 기록에 따르면 오시코 신사에는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으며, 이들 중에는 독일인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필리프 프란츠 폰

지볼트(1796~1866)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볼트는 일본에 대해 저술한 저서 중 하나에 이 바위의 상세한 스케치를 3 개 게재했습니다. 20 세기 이후, 거석은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곳으로 간주되며 인간의 상식과 현대의 과학을 가지고도 아직 해명할 수 없는 기적, '일본 3 대 기적' 중 하나로 사람들을 매료하고 있습니다.

이시노호텐과 인근의 고분 시대(250 경~552)부터 시작된 다쓰야마석 채석장은 2017 년에 함께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지정 구역은 약 11 헥타르이며, 49 건의 문화재로 이루어진 귀중한 유산입니다.